

나주혁신도시 수도꼭지서 또 흙탕물 ‘칼칼’

지난달 이어 연이은 불량 수도물에 주민 분통

수자원공사 첨단장비 투입해 원인 파악 나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내 수도꼭지에서 다시 흙탕물이 쏟아져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도꼭지에서 갑자기 흙탕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혁신도시내 LH아파트 4개 단지에서 뿜어 수돗물이 나와 ‘먹는 물 부적합 경보’ 발령을 내리고 이토(뽕깡)작업을 진행한 지 23일 만이다. LH와 나주시는 지난 3일과 17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58개 항목에 대한 수돗물 검사를 의뢰해 오는 27일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었다. 이로써 정밀검사 결과와 무의미해져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길어질 전망이다.

전남도와 나주시, K-WATER(수자원공사) 및 시행 3사는 지난 20일 혁신도시 홍보관에 긴급 대책반을 꾸리고 또다시 흙탕물이 나온 원인 분석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추정대로 시행사 공사구간 관로가 문제라고 보고 최첨단 장비인 ‘사하라’ 탐사기를 긴급 투입했다.

수자원공사는 혁신도시에 설치된 수도관로 중 직경 300mm 이하 관로는 내시경으로, 300mm 이상 관로는 ‘사하라’ 장비 카메라를 이용해 관로 속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흙탕물이 나오기 시작한 날짜가 다도(혁신) 배수지를 통해 수돗물 공급이 이뤄진 시점과 일치하는데도 관로 정밀검사 탐사구간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급 날짜는 맞지만 민원제기는 오전에 있었고, 다도배수지를 통해 수돗물 공급은 오후 늦게 시작해 연관성이 없다”며 “혁신도시 입구까지 주 관로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탁도에 이상이 없어 현재

까지 관로탐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의 대응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사는 1차 발생 이후에 시행 3사 전 구간이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안심할 수 없었는데도 20일 2차 발생에도 공사 구간에 위치한 이전기관과 주택, 상가에 음용수 중단을 내리지 않았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1차 발생 이후 샘플링 조사에서 전남개발공사 구간은 탁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 음용수 중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지난 20일에 전남개발공사 구간에서도 탁한 물이 나오기 시작해 전남개발공사 일부 구간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다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가 및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전기관에 공급되는 구간의 밸브만 일시적으로 잠그고, 자신들에게는 음용수 공급을 계속했다”며 “현재도 전남개발공사 구간의 주민들에게는 음용수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돗물 음용에 적합한 탁도 기준치가 0.5NTU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이물질이 수도 관로속에 남아있는지를 검사하는 최첨단 장비인 ‘사하라’.

정읍상공회의소 신임회장에 김적우 대표

“기업·소상공인 상생 최선”



강화하고 위탁·협력사업을 유치해 회원들을 위한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했다”면서 “현재 정읍 위주로 구성된 상공회원 체계를 바꿔 김제시와 고창·부안군의 상공인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회원들을 배가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읍 출신인 김적우 회장은 원광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국제 인권옹호 한국연맹 정읍지회장과 내장산라이온스클럽 회장, 라이온스 정읍·고창협의회 부총재를 역임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MG정읍새마을금고 겸 정읍농수산 김적우(72·사진) 대표가 정읍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읍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상의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대표를 제2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기존 기업은 물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도청과 시청, 군청과의 유대를



순창군 북흥면 자포마을 주민들이 지난 20일 마을앞 선뜰에 줄다리질 옷을 입히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 북흥면 5개 마을 안녕기원 당산제

음력 2월 초하루인 지난 20일 순창 북흥면 5개마을에서 마을주민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렸다. 당산제는 북흥면 정산리 동산마을과 석보, 대각, 자포, 덕흥마을에서 진행됐다. 자포마을의 경우 풍물 농악에 이어 굿

게 역은 앞줄과 수출 사이에 비녀를 꽂아 동네 남자팀과 여자팀이 줄다리기를 3번 진행했다. 줄다리를 마친 주민들은 새끼줄을 마을앞 선뜰에 옷을 입고, 축문을 읽어 액운을 쫓고 풍년을 기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광양시, 에콰도르·파나마 잇따라 방문

투자 유치·중남미 시장 개척 적극 나서

수출입 활성화 등 협의

광양시가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 유치와 중남미 수출·입 시장 개척에 발 벗고 나섰다.

정현복 시장과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은

23일부터 30일까지 에콰도르와 파나마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역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남미지역 파나마 유통 활성화를 통한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다.

시는 광양항 이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전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MOU에 따라 배후단지에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에콰도르 지역항만 확장과 준설공사 등에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에콰도르 건설교통부, 상공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계획돼 있다. 특히 우호교류 도시 협약을 맺고 있는 파나마 시를 방문해 광양항과 파나마 항만간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카 에레라 주한 에콰도르 대사와 루벤 발데스 파나마 대사가 지난 6일과 9일에 광양시를 방문해 정 시장과 양국 간 교역시 광양항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에콰도르 외무부 장관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약 6월중 한국 방문을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 남미지역과의 FTA가 체결되면 30% 수준인 농·수산물 수입관세가 대폭 인하돼 수출·입 물동량 증가가 기대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군산시, 시간여행 관광상품 개발...조달청과 ‘역사문화 탐방서비스’ 협약

시간·바다 등 4가지 주제

나라장터 통해 가격 저렴

군산시의 조달청이 군산지역 근대역사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시간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군산시의 조달청은 23일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역사문화 탐방 서비스’ 개발과 구매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관광상품 개발과 구매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산 역사문화탐방 서비스’는 최초로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관광상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조달청은 ‘역사문화 탐방 서비스’ 상품을 공동 개발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한 뒤 오는 4월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역사문화 탐방 서비스’는 주제별 특성을 반영한 ▲시간길 ▲타류길 ▲구불길 ▲바닷길 등 4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형 서비스인 이번 상품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반·해설하도록 개발해 교육적 효과를 크게 높였다.

안전과 위생을 직접 관장하는 공공기관이 주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개발한 상품의 특성으로 가격의 경제성도 확보했다.

특히 조달청의 기존 여행상품은 학생들을 대상을으로 했지만 이번 상품은 정부·

공공기관의 수련활동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자의 폭을 넓혔다.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택, 직접 납품요구(제3차 단계계약)하고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이용절차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문동신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의 전국적인 홍보가 가능해 연 1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군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영진기자·전북취재본부장

올해는 ▲홈메이저 수납전문가(24명) ▲전통장류 자격증(24명) ▲교육 마술 지도사 자격증(22명) ▲홈패션 창업(22명) 등 4개 과정 92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총 3개월에 걸쳐 200시간(하루 4시간)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취업에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 취업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면접심사를 거쳐 직업교육 훈련생으로 선발한다. 문의(063-633-0860)

/남원=정규식기자 jgs@

남원시 국비지원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31일까지 4개 과정 92명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오는 31일까지 2015년 국비지원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한다.

전액 국비 지원되는 이번 직업교육 훈련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ERP회계관리사 등 6개 과정을 개설해 132명이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5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남원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6㎡(363) 투자양호 14억
- 금매 광천동터미널 인근 6층건물 대지 661㎡(200) 건평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 15억 전세 9억 월500 회사사옥 등 적합 25억
- 광주여대 부근 신정동 원룸건물 대지 1179㎡(366) 건평 815㎡(246) 원룸30실 월5000선 수익 부지가치양호 6억7천
- 모뎀 화순군 도곡면 대지 1671㎡(505) 건평 1010㎡(305) 4억 5천
- 사할, 기도원, 요양시설 적합 보성군 문덕면 땅 2092㎡(633) 건평 874㎡(264) 은행 1억선 매도 1억 7천
- 대인동 4차선 도로점 376㎡(114) 공시지가 8억 6천, 매도 7억 2천
- 레스토랑, 카페, 음식점,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에서 5분거리 영업장 겸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 교환가능 5억7천
- 유동 로타리 인근 4차선 도로 상업지 대지 335㎡(101) 건평 601㎡(185) 공시지가 3억9천 은행 2억2천 매도 4억
- 광신구 신창동 부영 APT 1차 건너편 원룸촌 대지 230㎡(69) 투룸11세대, 은행 8천 전세 3억 6700 월 82 매도 500만원
-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대로점 상업지 649㎡(210) 건물 522㎡(158) 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0억5천

투자·매도·교환분

- 조산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월률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선 수익 8억7천
- 화정역 5분거리 대지 645㎡(195) 별장용 단독주택 등 적합 3억
- 전월주택, 빌딩 부지 담양군 봉산면 외우리 1645㎡(498) 분할 매도도 가능 평당 54만원
- 펜션 별장 등 적합, 나주시 산포면 790㎡(234) 1억
- 장성군 황룡면 대지 등 3686㎡(1115) 매도 9천만원, 전원생활 적합
- 진도군 교곡면 백파리산 16860㎡(5100) 2천 5백만원

피자가기가막혀 가맹점 모집

흑이도우 스트링 치즈피자
성공창업의 필수요건을 드립니다.
창업아이템·상권 및 입지분석·창업마인드·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1544-8149)

☎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층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층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서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집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 75㎡, 집포 26㎡, 매2억4천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거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신거리 전 2,820㎡ 2차선도로변 광주시 대촌동경계 매1억7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참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재리 담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8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전(임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자연녹지, 판매장 적합 투자 유망 매1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해남토지급매

산이면 구성지구

해남기압관광도시 (J-프로젝트) 토지보상계획지역내토지 650평 평당 13만원 (공시지가 1.3배 가격임)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위원회 구성중 1년내 70%이상 이윤실현가능 2015년 하반기 보상예정

문내면 석교리 관리지역

낮은 아산임 5300평 평당 2만 5천원 (폭 6m이상 현황도로 있음) 개발행위허가 가능 목포 생활권임

용도 주택, 밭, 과수원, 목장 사료/퇴비공장, 창고, 태양광(사전준비) 모두가능

문의전화 (지주직접) 010-7979-8257

工場매도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기획관리지역)

- 공장부지 : 대지 14,540㎡
- 도로 : 대형차량 진입 (광주간 15분대)
- 매도금액 : ㎡당 300,000원
- 기타 : 부지, 건물 분할매매 등 협의가함.

건물(근래신축)

길이 폭 높이

- 1동 1160㎡ (58×20×18m)
- 2동 1060㎡ (53×20×18m)
- 3동 330㎡ (관리동)

조건

광주근거리 최고의 투자자치 정사각 대형 부지로 차량 출입,운반용이 물품제재 등 최적조건 갖춤.

010-5059-5260

법원경매

하남3지구 택지개발지역 상업용지 분양 대로변 코너415㎡ 최저가 5억, 대형단지형성

동구 충장로5가 도로점 상가밀집 중심상업구역 대지155㎡ 건물628㎡ 감정가5억6천5백32만원 최저가4억

부동산 재테크 전문

담양군 금성면 근린시설대지 30,308㎡ 2층건물 2,916㎡ 현재 민속박물관(요양병원, 수련원,전원주택개발가능) 감정가28억 최저가10억

북구 충효동 전,147㎡ 취가정일원 식당이주단지인접 투자적합,충효동 물건다수보유 최저가 6천5백만원

부동산개발 및 경,공매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0-7147-4989